



유로존 경기침체 지속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유럽통계청(Eurostat)은 유로존의 2012년 4/4분기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-0.6% 를 기록하였고 2012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-0.9% 를 기록하였다고 3월 6일 발표함.
 - 유로존 경제는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2012년 2/4분기 -0.2% , 3/4분기 -0.1% , 4/4분기 -0.6% 를 기록함에 따라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유로존 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4.1% 성장한 이후 2010년 2.0% , 2011년 1.4% 성장하여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2년 -0.9% 성장하면서 더블딥에 빠짐.

- 2012년 4/4분기 유로존 경제는 소비 및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부진해 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됨.
 -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악화 지속, 소비자 체감경기 악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0.4% 감소함.
 - 고정자본투자는 투자심리 위축, 설비 및 주택투자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1.1% 감소함.
 - 수출은 3/4분기에 전분기대비 1.0% 증가하였으나 4/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0.9% 감소함.

- 지역별로는 독일, 프랑스 등 주요국과 덴마크, 핀란드 등의 북유럽권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전환되었고, 스페인, 이탈리아 등의 남유럽권은 경기침체가 심화됨.
 - 2012년 3/4분기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플러스 성장하였던 독일과 프랑스는 투자 및 수출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-0.6% , -0.3% 성장함.
 - 4/4분기 덴마크와 핀란드 경제는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세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-0.9% , -0.5% 성장함.
 -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은 3/4분기에 전분기대비 각각 -0.2% , -0.3% 를 기록하였고, 4/4분기에는 각각 -0.9% , -0.8% 를 기록함.

■ 유로존 경제는 고용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선행 지표가 악화되어 2013년 1/4분기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- 유로존의 2013년 1월 평균 실업률은 11.9%로 2012년 4/4분기 11.8%보다 상승하였으며, 이러한 실업률 상승은 독일을 제외한 유럽 전반에 걸쳐 나타남.
 - 프랑스(2012년 4/4분기 10.4% → 2013년 1월 10.6%), 이탈리아(2012년 4/4분기 11.2% → 2013년 1월 11.7%), 스페인(2012년 4/4분기 26.1% → 2013년 1월 26.2%)
- 시장 조사업체 Markit는 유로존의 구매자관리지수(PMI)¹⁾가 2013년 1월 48.6, 2월 47.9를 기록함에 따라 1/4분기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.

■ 유럽중앙은행(ECB)은 유로존의 소비 및 수출 부진 지속으로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2013년 및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3월 7일 밝힘.

- ECB는 은행권의 신용 축소 지속, 역내외 수출 부진 등 경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여 유로존 경제가 2013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.
- ECB는 2013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2012년 12월 전망치(-0.9~0.3%)에서 상한선을 낮춘 -0.9~-0.1%로 전망함.
- 또한 2013년 유로존 GDP 성장률을 0.0~2.0%로 수정 전망하였는데, 이는 2012년 12월 전망치(0.2~2.2%)보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하향 조정된 수치임.

■ 한편 ECB는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과 이탈리아 정국 불안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, 스페인 등 여러 국제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는 현행 0.75%를 유지하기로 함.

- ECB는 3월 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이 대체적인 컨센서스였다고 발표함.
 - ECB는 2012년 7월 0.25%p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8개월째 금리를 동결함.
- 다만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임.
 - ECB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으로 2013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종전의 1.1~2.1%에서 1.2~2.0%로 상한선을 낮춤. (ECB, Eurostat, 3/6~3/8)

1)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를 나타내는 PMI는 50을 기점으로 경기 회복과 침체 국면이 규정되며, 50 이하는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함.